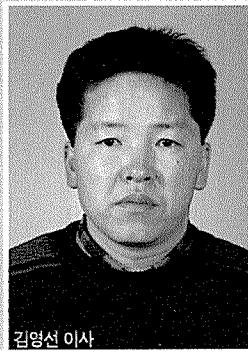


목포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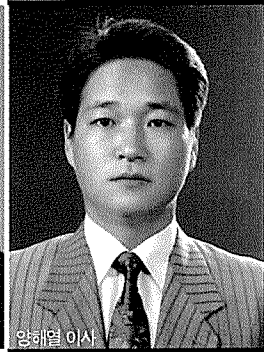
깨어난 의욕이 어우러질 두레의 공동체

우리가족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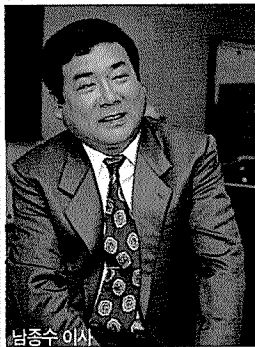
'우리 가족 한마당'이 목포를 찾았다. 83년 12월 '출생신고'를 한 목포지부는 움츠려 있던 지난 날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라앉아 있었던 의욕을 일깨우고 있다. 유달산의 고틀머리에 자리잡은 지부 사무실은 깨어난 의욕을 한데 모으고 보람의 열매를 그득 담을 '그릇'이다. 투박하지만 흘러 넘치는 서로에 대한 씬씬이는 '그릇'의 깊이와 폭을 더욱 깊고 넓게 할 것이다. 두레의 미더운 전통이 오롯이 살아 숨쉴 목포지부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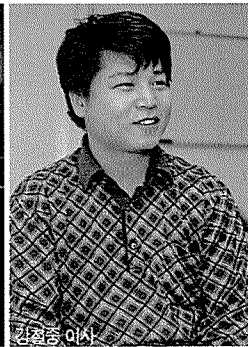
김경선 이사



양해열 이사



남중수 이사



김청호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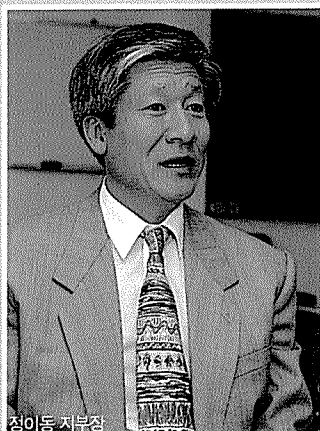
정은 이사



배우영 이사



최진한 이사



정이동 지부장



오은택 이사

울퉁불퉁 유달산의 바위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하다. 서해와 남해가 아우러져 만들어진 바람을 타고 상큼한 해초내음이 코끝을 간질이며 인사를 한다. '목포는 항구다.'

평일이라 시원하게 뚫린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광주에 닿고, 이어 1번 국도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출발한 지 6시간이 조금 못 미칠 때였다. 여러 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어서인지 목적지에 내릴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설날, 추석때는 이 길이 몇 시간이나 걸릴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다리를 털고 허리를 돌리고 있으니 저 쪽에서는 정이동 지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는다. "먼 길 오시느라 육보셨소." 걸죽한 사투리에 정감이 뚝뚝 배어 나온다. 장거리 여행의 피로가 순간 녹아내린다.

유달산 산자락에 마련한 '희망'의 보급자리 정 지부장은 일행을 지부 사무실로 인도했다. 유달산 산자락 끝을 잡고 있는 목포시 무안동에 자리를 튼 지부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세심한 배려가 사무실 내부를 휘감고 있었다. 서울을 출발하기 전 전화 통화에서 정 지부장은 지부탐방을 극구 사양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게 이유였다. 가능성을 찾아 가는 것이 지부탐방의 목적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부 사무실에 들어서서는 순간 '가능성'의 단초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부 사무실로는 적지 않은 규모인 32명의 사무실은 앞으로 회원들의 의욕과 열정의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했다.

목포지부는 지난 83년 12월 27일 전남 지역의 6개 지회·지부 중 3번째로 설립되었다. 어디나 그러하듯 목포지부도 초창기 시절 경기 침체 및 회원수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에 따라 베이커리 시장이 활성화되었지만 반도의 남서쪽 끝까지는 '바람'의 세기가 미미했다. 자연 지부의 활동도 회원수를 '체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간판만 유지하던 목포지부가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된 때는 90년을 훌쩍 넘긴 93년 3월이었다.

정이동 지부장은 목포 제과업계에서 '대부'로 통한다. 그는 수십년간 지역에서 제과업을 운영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고 많은 기술인을 배출하였다. 지부의 임원들 중 상당수가 한때 정 지부장의 점포에서 기술을 익혔다. 그래서인지 임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흡사 친동생 대하는 듯 스스럼이 없었다. 그는 93년 지부장으로 취임한 후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목포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특유의 마당발로 바지런히 움직였다. 늦었지만 베이커리 경기의 '바람'이 목포에도 불면서 회원수도 늘기 시작했다. 지부의 틀과 내용이 갖춰지면서 회원의 힘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했다. 10년동안 사무실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 지부장은 사비를 털어 93년 10월경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릇'을 마련하자 지부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열의도 수월하게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지부는 도움을 주는 곳... 자발적 참여 유도

그러나 기지개를 켜기에는 움츠렸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시간을 두고 달혀있던 마음들을 열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시내를 두루 돌며 '단합이 곧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부심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제1회 목포 제과인 체육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조그마한 결실이었다. 배두영 이사는 "이번 체육대회는 오랜만에 마련된 행사여서인지 회원들의 참여 열기가 무척 높았다"며 "회원 단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이 행사의 정착을 낙관했다. 목포지부는 이 행사를 계기로 회원 관리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관리 책임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분회조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역담당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목포지부는 전체 60여 곳의 제과점 중 3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타 지부에 비해 회원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조직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지난 날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무리



비회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하게 비회원 업체에 대해 회원 가입을 강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비회원 업체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월례회를 내용성 있게 꾸리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공동구매, 이미지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모래성'을 쌓지 않겠다는 남중수 이사의 말이다.

인구 25만의 목포는 대도시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이 미진한 형편이다. 고체선 이사는 그 이유를 "중앙 공장에서 배송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목포 시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윈도우 베이커리에게는 유리한 영업환경인 셈이다.

한편 목포는 곳곳에 공사가 한창이다. 조선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 흡인의 '꺼리'가 마땅치 않아 눈에 띄는 인구변화를 보이지 않던 목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시장환경의 변화는 '시장

확대'와 '경쟁 가열'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목포지부는 보고 있다. 풀어서 말하면 제과점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함께 폐점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이동 지부장은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제과점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부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情)으로 가꾸는 '두레'의 튼실한 열매

목포지부는 시내 곳곳에서 들리는 중장비 기계 소리에 맞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은 미숙한 점이 수시로 발견되고 기대만큼 열의도 달아오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점수는 후하게 매기고 있다. 적은 회원이지만 적은 만큼 유달리 깊은 '정(情)'은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두레'라는 미더운 전통이 있다. 상부상조의 실천은 사회를 더욱 윤기 있고 풍요롭게 가꾸는 거름이 된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곡식 더미가 쌓여있는 듯한 유달산이 넉넉한 모습으로 굽어 보고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목포지부가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두레의 미덕을 튼실하게 키워 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훈훈하게 퍼진 저녁놀이 목포~광주 1번 국도 옆구리에 깔리고 있었다. [K]

(글/손인수)